

AI, 가치중립적? 설계자 의중 반영... 감시시스템 필요

포털 뉴스편집 공정성 논란

국회의원 '다음' 메인편집 문제 제기
보좌진에 메시지 전달내용 포착돼
네이버·카카오 "AI가 뉴스 배열
내·외부서 인위적인 배치 못해"
"인공지능도 결국 사람이 설계
완전한 가치중립적 판단 아냐"

포털이 뉴스 편집 공정성 논란을 겪고 있다. 인공지능(AI)이 편집하는 뉴스가 가치중립적인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포털 다음 메인 화면의 뉴스 편집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좌진에게 카카오 관계자를 국회로 부르라고 지시하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포착됐다.

네이버 부사장 출신으로 포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윤 의원이 포털을 압박하는 모습이 비춰진 이후 포털 통제를 통해 언론을 조작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포털의 뉴스 편집에 사람이 관여할 여지가 있지 않냐는 것.



네이버(왼쪽)와 다음이 제공하는 모바일 뉴스 화면 캡처. /구서윤 기자

국내 양대 포털 네이버와 카카오는 AI를 통해 뉴스 편집을 진행하고 있기에 사람의 개입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네이버는 2017년 2월 AI 뉴스 맞춤 추천 서비스인 '에어스'를 도입한 이후 지난해 4월 언론사가 개별 관리하는 뉴스 영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AI가 뉴스를 배열하도록 하고 있다. 개별 사용자의 뉴스페이지 체류 시간, 소비 활동 등에 기반해 기사를 추천

하기 때문에 개인별로 다른 뉴스가 나타난다. AI 도입 전까지는 직원 100여 명이 직접 네이버 첫 화면에 들어갈 뉴스를 선별했었다. 카카오는 2015년 6월부터 AI 뉴스 추천 서비스 '루빅스(현재 카카오i)'를 도입했다. 루빅스는 개별 독자가 평소 관심을 보인 분야의 기사, 독자와 성별·연령대가 같은 집단이 많이 보는 기사를 분석해 기사를 선별하고 배치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외부는 물론 카카오 내부에서도 누군가 인위적으로 뉴스 배치에 관여할 수 없으며 뉴스는 전적으로 AI가 편집한다"고 말했다. 다만 전국민이 실시간으로 알아야 할 대형사고·재난재해, 스포츠 중계 등에 대한 뉴스는 모든 사용자에게 우선 배치되기도 한다. 포털이 AI를 전면에 내세워 뉴스 편집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일각에서는 AI의 중립성을 믿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포털의 뉴스 편집 신뢰도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AI 알고리즘의 투명성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포털 다음을 창업한 이재웅 전 쏘카 대표는 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I 뉴스 편집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AI는 가치중립적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규칙 기반의 AI는 그 시스템을 설계하는 사람의 생각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예컨대 AI 채용면접의 경우 지원자에 대한 판단은 AI가 하는 것이지만 이미 규칙을 설계하는 과정에서 학점, 표정, 경력 등에 각각 어느 정도의 비중을 둘 것인지 사람이 개입해서 정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인공지능은 우리가 설계한대로 혹은 우리의 현상을 반영해서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AI라고 해서 가치중립적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며 "AI가 차별하지 않는지에 대한 감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AI 알고리즘에 대한 검토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네이버의 경우 뉴스 편집 알고리즘을 검토하려는 노력이 있었다. 2018년 5월 뉴스 알고리즘 검토 위원회를 발족한 이후 네이버의 뉴스 검색 서비스, 에어스 뉴스 추천 서비스 등에 사용된 알고리즘과 실제 결과를 좌우하는 학습데이터 및 서비스 절차에 대한 검토를 거쳤다. 이후 11월 네이버의 뉴스 알고리즘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고, 뉴스 배치에 관리자가 개입할 수 없는 구조라는 의견을 발표했다. IT 업계 관계자는 "사람이 뉴스 편집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포털이 AI를 내세워 중립성을 주장하고 있지만 AI 알고리즘은 결국 사람이 만든 것이기에 완전한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면서 "외부 검증 시스템을 통해 공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서윤 기자 yuni2514@metroseoul.co.kr

차세대 반도체 개발에 10년간 1조 투입

산업부-과기정통부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 선순환생태계 구축 공공·민간 MOU

정부가 차세대 지능형반도체 개발에 향후 10년 간 1조원 이상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소재 반도체산업협회에서 '(재)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 출범식을 갖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과 국내 반도체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공공·민간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성윤모 산업부 장관,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김형준 차세대지능형반도체 사업단장, SK 하이닉스 박성욱 부회장, 국내 반도체 주요 기업 과 협력기관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차세대지능형반도체사업단은 정부가 올해부터 착수하는 차세대지능형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단일 법인으로 구성된 기관이다. 사업기간 중 사업 기획뿐 아니라 반도체 전 분야를 아우르는 중장기 발전 로드맵을 수립하는 등 공공과 민간 협력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사업에는 2020년~2029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조96억원이 투입된다. 올해는 103개 기업, 32개 대학, 12개 연구소가 82개 과제에 참여한다. 사업을 통해 전력소모 감소와 고성능 구현을 위한 미래소재, 연산 속도 향상을 위한 설계기술, 미세화 한계를 극복하는 원자단위 공정·장비 기술 개발 등에 나선다.

정부는 이날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협력 MOU'와 '반도체 주요기업-기관 간 연대와 협력 MOU' 등을 통해 반도체 기술개발과 관련 기업 애로 해소,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반도체산업협회, 나노융합기술원, 융합혁신지원단은 개발된 소재부품장비가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기업 수요를 반영한 인프라 구축, 기초·적용평가와 양산평가 간 연계, 패턴웨이퍼 지원사업 관련 협력 등을 적극 추진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성공을 위해 수요-후원-개발기업이 제품개발 초기에 필요한 성능에 대한 정보 공유 등 공동연구, 설계 검증을 위한 파운드리 분야 서비스 제공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한용수 기자 hys@



배달은 언제... 줄지어 대기중인 오토바이 10일 서울 동대문시장 앞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대기해 있다. 코로나 재확산으로 시장 상인들이 직격탄을 맞으면서 오토바이 배달업자들도 불황을 겪고 있다. /연합뉴스

카카오게임즈, 당분간 상승세도 머무를 듯

>> 1면 '카카오게임즈의 질주...'서 계속

이번 상장으로 남궁훈 각자대표 등 회사 경영진도 돈방석에 앉게 됐다. 남궁대표가 보유한 241만2500주의 평가액은 1505억원에 달한다. 자회사인 엑스엘게임즈의 송재경 대표(56만6824주 보유)의 평가가치도 354억원까지 치솟았다. 이 밖에 조계현 대표도 15만주를 보유하고 있어 스톡옵션 평가차의 72억원에 보유주식 평가액 94억원까지 누리게 됐다. 카카오게임즈 모기업인 카카오 보유 지분(46.08%) 가치도 2조1048억

원을 기록했다. ◆주가 더 갈까... 오버슈팅 가능성의 식해야 막대한 유동성과 공모주 인기 등을 생각하면 당분간은 상승세에도 머물러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황현준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카카오의 자회사 1호 상장이고 기대 신작 게임 출시가 임박한 점, 최근 공모주 인기 등을 고려했을 때 주가는 본질적 가치를 상회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김소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도 "카카오게임즈는 PC와 모바일 사업 역량

을 모두 갖춘 대표 게임사"라며 "가디언 테일즈와 엘리온 출시로 큰폭의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이미 증권사의 추정가치는 의미가 없어졌다. 주가가 기업가치를 넘어섰을 가능성을 의식해야 한다는 얘기도.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4만2000원, SK증권은 3만8000원, 대신증권은 3만3000원, 메리츠증권은 3만2000원, 한화투자증권은 3만원을 카카오게임즈의 목표주가로 내놨다. KTB투자증권은 적정주가로 2만8000원을 제시했다. 일시적 폭등(오버슈팅) 가능성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있다. 기업의 실적 등 밸류에이션(평가가치)을 고려하면 급등은 무리라는 지적이다. /송태화 기자 alvin@

외평채 14.5억弗 역대 최저금리 발행

기재부, 금리 5년물 유로채 -0.059% 10년물 달러채는 지표금리인 미국채 금리 하락 등으로 과거 달러화 외평채보다 크게 낮아 10년물 기준으로 역대 가장 낮다. 10년물 달러화 외평채 금리는 2017년 2.871%, 2018년 3.572%, 2019년 2.677% 수준이었다. 가산금리(50bp)도 10년물 달러채 기준으로 2017년 55bp보다 낮아 역대 최저다. 2029년 만기가 돌아오는 외평채의 유통금리는 61bp 수준인데 이보다도 10bp 이상 낮다. 5년물 유로채는 비유럽국가의 유통화 표시 국제 중 최초로 마이너스 금리 채권으로 발행됐다. 정부가 액면가액인 7억유로보다 많은 7억200만유로를 받은 뒤 만기에는 이자 없이 7억유로만 상환하게 된다는 의미다. 정부는 역대 최저수준의 금리는 해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한용수 기자